비구니 스님 위한 '수행복지공간' 열린다

신흥사 운암 비구니 수행관 개소 준비

비구니 스님을 위한 복지, 수행 그리고 다비로 임종까지 책임지는 수행복지공간이 탄생한다.

조계종 신흥사(주지 성범)는 '신흥사 운암 비구니 수행관' (이하 수행관)을 불사 중이다. 신흥사 운암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의 노후 복지를 개선하고 안전한 수행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흥사는 비구니 노스님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수행관을 설계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며 전문의료기관 협약으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및 응급 처치 그리고 수술 등을 제공해 건강을 관리한다. 아울러 방 마다 센서를 부착해 30분 이상 수면 시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자 호출 기능이 작동해 돌연사를 예방한다.

화장실과 방에는 긴급호출 버튼을 설치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외 수행을 위한 선원과 학림을 운영하고 다도, 서예, 운동시설 등 문화생활까지 담당하는 최고급 시설을 준비했다.

수행관은 특히 노스님들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일반 비구니 스님의 학업과 수행에도 도움을 줘 눈길을 끈다. 신흥사는 수행관에 거주하는 비구니 스님이 하·동안거 결제 기간에 다른 선원에 방부시 해제 보시금 100만원을 지급해 수행을 독려한다. 수행관 내 에서는 법사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문 및 경전 공부도 이어간다.

신흥사는 수행관 위치가 도심 속 공원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호텔형 현대식 건물 및 시설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주지 성범 스님은 "도반이었던 비구니 스님의 암투병과 열반을 지켜보며 불사를 결심했다"고 불사 동기를 설명했다.

수행·복지 그리고 다비까지
안전 위한 현대 장치 '눈길'
12월 완공, 내년 1월 입주
"비구니 스님 복지 개선되길"


신흥사가 불사 중인 비구니 운암수행관 모델하우스 모습. 올해 12월 완공돼 내년 1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성범 스님은 "수덕사에서 수행하던 중 만난 비구니 스님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후 갈 곳을 찾아 전전하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복지와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았다"며 "이후 비구니 스님의 처소를 마련해 수행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불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노후 복지 문제 가운데 시급한 것은 다비와 건강관리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큰 사찰에 유나, 주지 혹은 어른 스님들은 다비식으로 삶을 정리하지만 그 외 비구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은 일반 화장터로 가게 된다. 저희 수행관에서는 별도로 덕유산에 현대식 다비장을 마련해 마지막 열반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열악한 복지 상황이 해소되고 이번 불사를 계기로 많은 사찰에서 수행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흥사는 수행관 불사 후 인근에 요양원을 건립해 전문요양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흥사 운암 수행관 완공은 올해 12월이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지하 2층 지상 4층규모로, 옥상에는 정원과 게이트볼장이 마련된다. 지하에는 공예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과 식당 및 강당 등 대중생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방은 총 85실이며, 각 크기는 89.1㎡(일반 81실)와 178.2㎡(특실 4실)가 있다. 입주금은 1억2000만원이며 도반이 함께 방을 이용하면 분할해 입주 보증금을 내도된다. 입주금은 주거 이동시 100% 환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운암원.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기자

승시, 지역 넘어 전 국민의 축제로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10월 6~9일 스님들의 옛 산중 장터를 재현한 '제8회 승시축제' 를 열었다.〈사진〉

옛 초가집과 기와집 모양으로 꾸며진 부스에서는 다양한 불교용품들이 선보였다. 올해는 특히 사찰에서 생산한 먹거리와 공예품, 생활용품, 전통등과 전통문양, 불화 등 다채로운 불교전통 문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경내를 장엄한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들이 볼거리를 제공했다.

주지 효광 스님은 "승시는 그야말로 '진선미' 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이다. 우리 삶을 이상의 세계로 인하는 스님들의 산중장터요, 야단법석의 도량과 다름없다"고 했다.



앞으로 동화사와 대구시는 승시축제를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승가대학 제46차 총동문회

청도 운문사승가대학 제46차 총동문회가 10월 9일 경내 선열당에서 개최했다. 〈사진〉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동문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주 명성스님은 "운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불교와 모교발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성사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영제)는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10월 1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대성사 신도회의 지난 50년은 묘법연화의 밝은 이치로 세상을 이롭게 한 시간이었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앞으로의 50년도 세상 모든 이들의 이익과 복락을 돕는 자비광명이 온 법계에 두루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후손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될 대성사 대작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국불교조계종 백혈병 환아 돕기

대한국불교조계종 나눔실천승가회는 9월 25일 총본산 불광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에 전달했다.〈사진〉 나눔실천승가회는 매년 설·추석명절을 맞아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행을 펼치고 있다.

회장 호산 성보 스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불교 사상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종도 스님들께서 따뜻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창원 구룡사, 창건 90주년 기념법회

구룡사(주지 신공)가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창건법회를 10월 21일 오전 10시 구룡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창건 법회 법사 스님으로 구룡사는 지안 스님을 초청했다. 지안 스님은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의 선각자였던 운허 스님의 강맥을 잇고 있으며,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조계종 고시위원·조계종교육원 역경위원장·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찬불 음악회는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무대에는 구룡사 산하 신행단체인 우담바라 합창단 등이 오른다.

구룡사는 "행사를 구룡사 신도 모두가 직접 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준비한다"며 "합창단과 함께 창건 기념법회에서는 신행단체인 바라밀 선다회가 두리차회를 열어 손님을 맞는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팔관회, "호국의 기틀은 부처님 戒"

〈계〉

부산불교然, 10월 21~22일 팔관회 개최

부산불교연합회가 팔관회를 개최하고 부처님 계(戒)를 기본으로 삼아 호국을 기원한 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21~22일 범어사 경내에서 '2017년 팔관회' 를 개최한다. 팔관회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551년에 처음 진행돼 고려시대에서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 2대 중요의식 중 하나였다. 과거 팔관회가 진행된 10월과 11월에는 부처님의 팔계를 근본으로 생활하고 호국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 정신을 알리기 위해 △호국기원법회 △백희가무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수계법회를 재현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대행사는 △팔관회 닥종이공예전시 △팔관회 사진전 △팔관회 소원등 △문화체험(탁본·연꽃 만들기·다도) 등이 있다.

행사는 21일 오후 2시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기원법회로 시작한다. 호국기원법회는 범어사 개산대재를 함께 기념하며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한다. 참석 사부대중은 호국기도문(인왕반야경 호국품)을 낭독하며 호국불교 정신을 기린다.

법회에는 방장 지유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등 주요 승가 내빈 및 서병수 시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전통문화공연인 백희가무가 열린다. 백희가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효원관현악단이 협연한다.

22일 일정은 오후 2시 호국영령위령재가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호국영령위령재는 부산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하며 고려팔관회를 근거로 개최된다. 고려시대 팔관회에서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팔관재계수계법회를 재현한다.

부대행사인 팔관회 닥종이공예전시와 팔관회 사진전은 20~22일 3일간 범어사 보제루와 일주문 사이에서 진행되며 문화체험은 21~22일 2일간 범어사 문화광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팔관회 전통문화가치를 연구하는 '2017년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 는 10월 31일 오후3시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개최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팔관회가 지닌 전통문화 가치를 증명하고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노력중이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